



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
발행인 김하중  
발간등록번호 31-9735042-001274-14  
www.nars.go.kr

# 지표로 보는 이슈

제140호 2019년 6월 5일

## 의약품 사용 양상과 시사점

### 배경

-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양한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국민의 의약품 지출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
-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전문/일반의약품 사용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

### 주요내용

-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550 USD (한화 약 65만 원) 보다 낮은 509 USD(한화 약 60만 원)이며, 1인당 약제비 중 일반의약품의 비중은 약 20%임
  - 우리나라의 1인당 전체 의약품 지출 중 일반의약품의 비중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%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지난 10여년 간 의약품 생산 금액을 보면, 일반의약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품목수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은 감소하고 전문의약품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
  - 생산 금액 및 품목수의 변화는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문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에 기인함

###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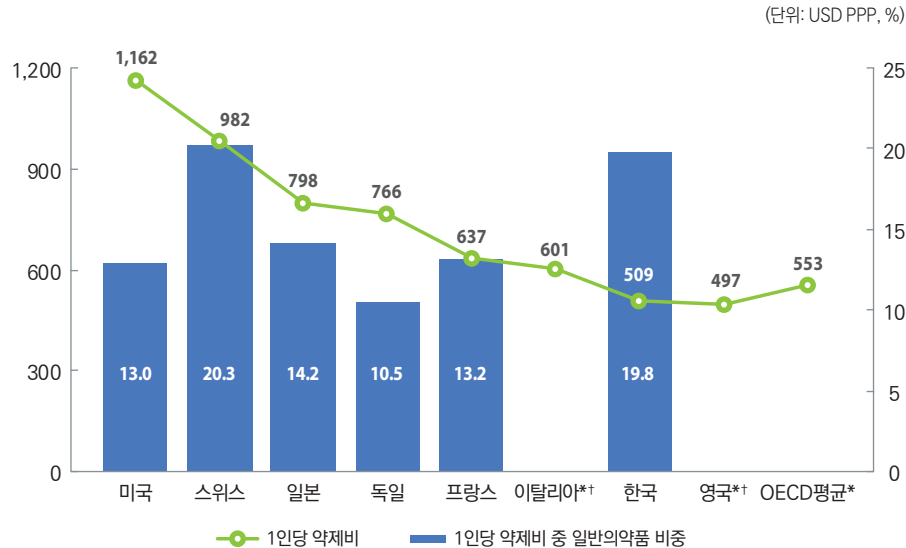
- 고령화, 만성질환의 증가 등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
  -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·심사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'의약품 표준제조기준'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
    - ※ 표준제조기준은 비타민·무기질제제, 해열진통제,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, 규격, 함량,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임
  - 향후 이와 같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
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김은진(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, 약학박사)  
02-788-4726, ejkim@assembly.go.kr

## A7 국가의 1인당 약제비 지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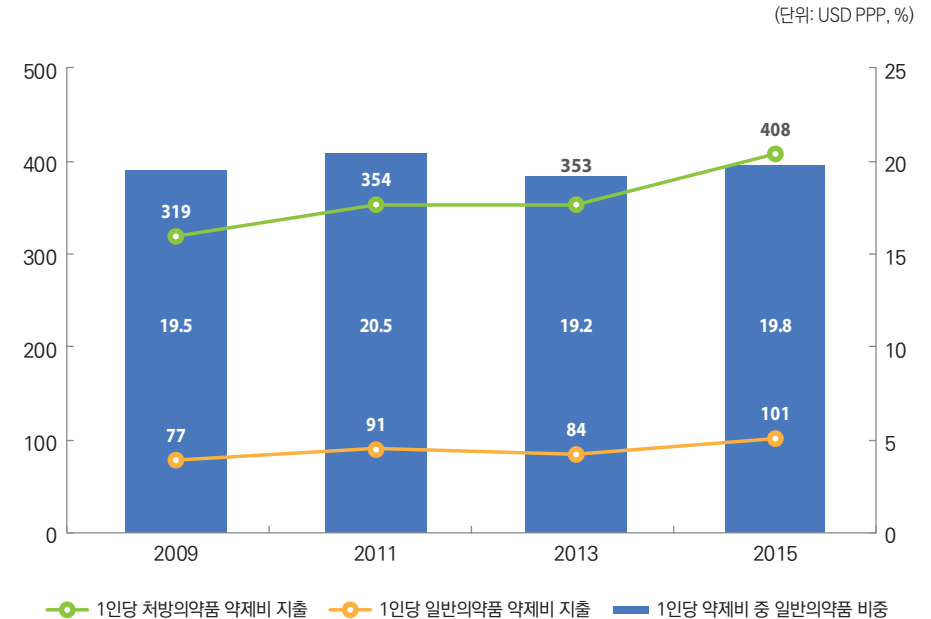
주: 약제비는 처방의약품과 보통 일반의약품(OTC, Over the counter drug)으로 자칭하는 자가투약에 대한 지출을 말하고, 병원 및 기타 다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은 제외하였으며, 이탈리아, 영국, OECD 평균의 경우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세부분류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약품 비중을 표시하지 않음

\*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세부분류되지 않음, † 의료용 비내구재를 포함하여 대략 5~10%가 과다 추정되었음

자료: OECD, 「OECD Health Statistics, 2017」

-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A7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, OECD 31개국 평균인 550 USD(한화약 65만 원)보다 약간 낮은 509 USD(한화약 60만 원)임
  - A7 국가(Advanced country 7,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위스, 일본)는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의약 분야 주요 선진국으로,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 소득 대비 약가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 중 일반의약품의 비중은 약 20%로, A7 국가 중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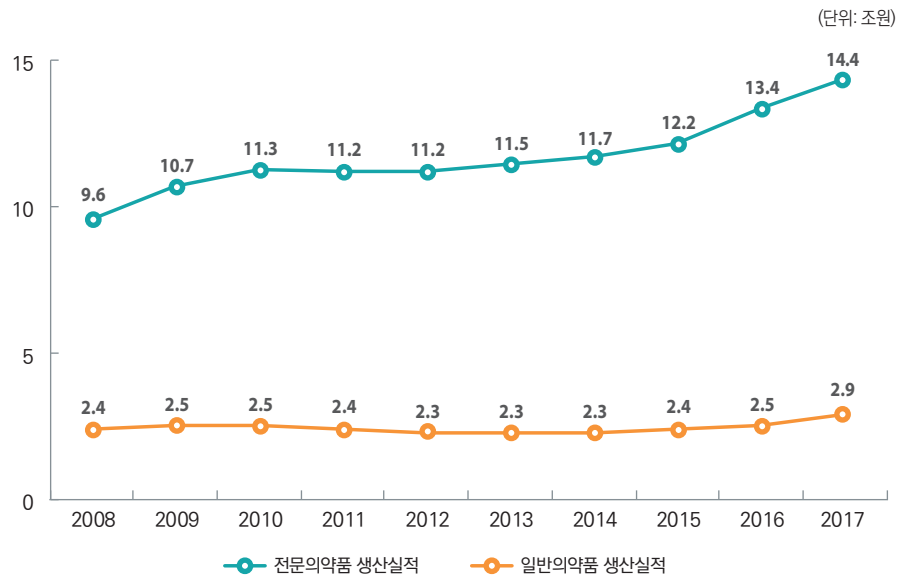
## 우리나라 1인당 처방/일반의약품 약제비 지출 및 일반의약품 비중



자료: OECD, 「OECD Health Data」, 2011, 「OECD Health Statistics」, 2013, 2015, 2017.

- 우리나라 1인당 처방/일반 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  -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인당 처방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319 USD(한화 약 38만 원)에서 408 USD(한화 약 48만 원)로 증가하였으며, 일반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77 USD(한화 약 12만 원)에서 101 USD(한화 약 12만 원)로 증가하였음
  - 그러나 전체(처방/일반의약품) 약제비 중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%대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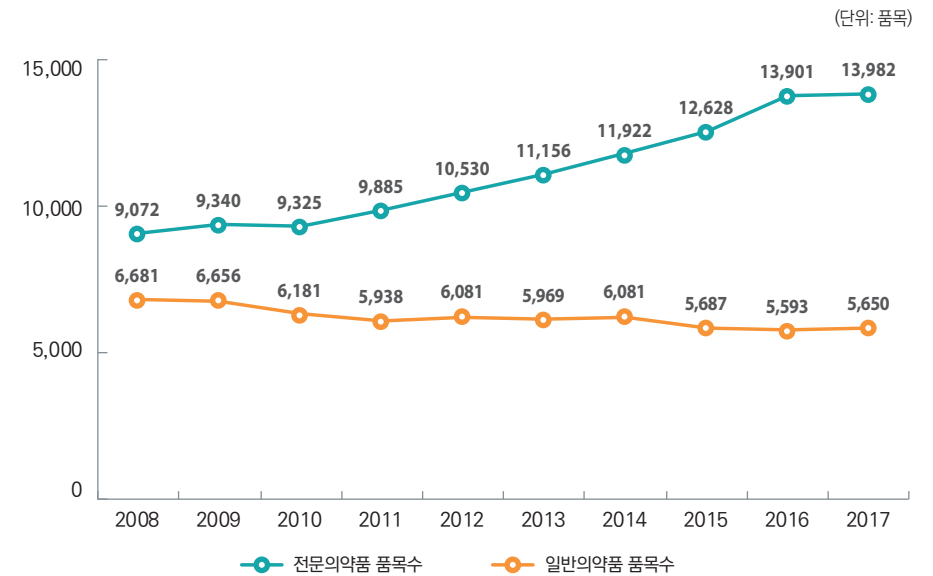
## 최근 10년간 일반/전문의약품 생산실적


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의약품관리종합센터, 「원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」, 2010~2017.

- 최근 10년 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생산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, 전문의약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
  - 일반의약품 생산 금액은 2008년 2.4조 원, 2017년 2.9조 원이었으며, 전문의약품은 2008년 9.6조 원, 2017년 14.4조 원 생산으로 일반의약품 생산 금액에 비해 전문의약품 생산 금액의 증가 추세가 크게 나타남
- 의약품 생산량의 증가는 의약품 사용의 증가, 의약품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

## 최근 10년간 일반/전문의약품 품목수


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의약품관리종합센터, 「원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」, 2010~2017.

- 최근 10년 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품목수 변화를 살펴보면, 일반의약품은 감소하고 전문의약품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
  - 일반의약품은 2008년 6,681 품목, 2017년 5,650 품목으로 2008년 대비 감소하였으며, 전문의약품은 2008년 9,072 품목, 2017년 13,982 품목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
- 일반의약품 품목수가 감소하고 전문의약품 품목수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문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에 기인함
-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

#### 관련 통계 사이트

OECD Health Statics (<https://stats.oecd.org>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 (<https://www.hira.or.kr>)



**국회입법조사처**
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**[www.nars.go.kr](http://www.nars.go.kr)**

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「지표로 보는 이슈」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·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.